

치아보험, '무조건 보장'은 없다

#전주 서신동에 사는 K(40) 씨는 직장 동료가 치과치료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을 보고 치아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후 80일이 지났는데 마침 충치를 발견해 치아보험을 받고 치아를 덧씌우는 크라운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보험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치아보험 가입 직후 90일 이내에 받은 치료에 대해선 보장해주지 않는 '면책 기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100세 시대가 시작되면서 가장 주목 받는 보험상품 가운데 하나가 치아보험이다. 치아의 경우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치료가 필요하지만 치료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 역시 관련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AIA생명, 한화손해보험, 동양생명, 아사히리프트 등이 치아보험 신상품을 선보였다. 치아보험은 라이선스생명이 지난 2008년 보험업계에서 가장 먼저 출시했고, 뒤

가입시 '보장 범위' 잘 따져야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면책·50% 감액기간 존재

보험 들기 전 치료받은 치아에는 보험금 없어

이어 에이스생명이 뛰어들면서 주로 소형사를 중심으로 시장을 개척해 왔다. 치아보험 시장이 성장하면서 소비자들의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보장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치아보험에 가입하지만 하면 치과 치료 금액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금융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치아보험에는 간단한 보장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유의하는 것이 좋다고 금융감독원은 조언했다. 치아보험은 충치·잇몸질환이나 상

해로 보철·보존치료 등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전화로도 간편히 가입할 수 있다. 치아보험 가입을 원하는 금융소비자들은 우선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해선 면책 기간과 50% 감액 기간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면책 기간은 크라운 등 보존치료의 경우 보험 계약일로부터 90~180일이고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 등 보철치료는 180일~1년이다. 면책 기간 이후에는 치료비의 50%만 보장해주는 감액 기간이 뒤따른다. 보통 보험 계약일로부터 1~2년이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1일 면책 기간 180일, 50% 감액 기간 2년인 치아보험에 가입했다면 올해 6월 28일까지는 치과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내년 12월 31일까지 치료받은 치아는 치료비의 50%만 보장해준다. 2018년 1월부터 치료비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질병이 아닌 상해·재해로 치료를

받았다면 별도의 면책·감액 기간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해로 인한 치료는 보장해주지 않고 충치 등 질병에 따른 치료만 보장하는 치아보험(정체 28개 상품 중 6개)도 있으므로 가입 때 확인해 봐야 한다. 1개의 치아에 두 가지 이상의 복합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이 더 큰 한 가지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해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사탕니 치료, 치열교정 준비, 미용상 치료,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 등에 대한 수리·복구·대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에 들기 전 5년간 충치나 치주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치아에도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이미 가입한 기존 보험 특약에 치과 치료 보장이 있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치아보험은 중복 가입했을 때 보험금이 각각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인재용 기자



'JB희망의 공부방' 제51호 전북은행은 8일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한 올리브언어심리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51호' 오픈식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 김병용 부행장, 노시형 사회공헌부장, (사)담장너머 윤상원 대표, 올리브 언어심리센터 이민리 센터장,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동의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인재용 기자

무역협회 전북본부, 농생명기업 세미나 개최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는 8일 전북 경제진흥진흥원에서 '제3차 전북 농생명기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엔코스메슈, 고려자연식품, 디자인농부, 로고스농산, 윈세이프 등 전북 농생명기업 대표 및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해 '최신 농생명산업 현황'을 비롯해 '2017년도 세미나 운영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고려자연식품 이동희 부사장은 "전북 특화산업인 농생명 분야가 성장하려면

기업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외진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해외 바이어의 특성과 요구조건을 주선 기관에서 정확히 파악해 우리 기업들이 보다 효과적인 마케팅/프로모션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엔코스메슈 김일광 대표는 "농생명 분야가 전북 특화산업으로 지정돼 앞으로 도 차원의 집중적인 지원을 바란다"며 향후 농생명 산업 중심지로의 전북도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인재용 기자



LH전북본부 사랑의 김장나눔

LH전북본부는 8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김장담그기 사랑나눔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LH 사랑나눔봉사단 30여명은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해 송천동 솔내 문화복지관을 찾아 직접 김장김치를 담그고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공시주택 거주 저소득 가구 등 350여 가정에 1500포기의 김장김치를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인재용 기자

군산농협, 지역 어르신 효잔치

군산농협 부녀회가 주관한 '행복한 섬김 지역 어르신 효잔치'가 지난 7일 어르신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농협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효 잔치는 군산농협 부녀회가 올 한해 새우젓, 청각, 멸치 등의 공동판매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부녀회장들은 이날 정성껏 준비한 점심을 대접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즐거움을 선사했다. /인재용 기자

국도 30호선 '진안 안전~무주 적상' 개통

진안군 안전면에서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를 잇는 국도 30호선 구간이 4차로로 확장되어 9일 오후 5시부터 차량통행을 시작했다.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국도 30호선 진안-적상 도로확장공사 2공구 구간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9일 오후 5시 정식 개통한다. 진안-적상 2공구는 전북 진안군 안전면 백화리에서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에 이르는 국도 30호선 11.6km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9년 착공해 총 1,290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터널 2개소와 교량 12개소, 교차로 10개소 등이 포함돼 있다. 기존도로는 급경사의 산악도로인데다 선형도 좋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으며, 겨울철에는 차량통행도 잦은 구간이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사고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겨울철에도 고로치터널 등 2개소의 터널을 이용하여 편안한 차량운행이 가능해졌다.

기존도로를 이용할 때보다 운행거리는 2.0km, 운행시간은 10분 이상 단축됐다. 이 구간의 확장 개통으로 인근 덕유산(무주리조트)과 적상산, 무주태권도 공원 등 지역 명소를 찾는 발길도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인재용 기자

전북농협, AI 확산 방지 앞장

전북농협이 AI 확산 방지를 위해 축협 공동방제단을 활용해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8일에는 강태호 본부장이 순정축협 정읍경제사업장을 방문해 AI방역시스템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전북농협은 AI특별방역대책반과 공동방제단을 운영하며 예방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동안 지역축협에 방제용 소독약품인 생석회 4,690포(93.8톤)과 소독약 1,060명 등을 지원하고 매일 축협별로 공동방제단을 통한 농가 방문 등을 받고 있다. /인재용 기자

시중전자파 차단제품, 차단효과 없다

휴대폰 관련 차단제품 11종, 전자파흡수율 감소 못해 소비자들 78.5%가 "차단효과에 대해선 잘 모른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전자파 차단제품 대부분이 아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등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19종의 전자파 차단제품 성능을 검증한 결과, 전 제품 모두 차단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대폰 관련 차단제품' 11종은 스마트폰 장착 시 통화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안테나 성능을 유지한 상태에서 전자파흡수율을 감소시키지 못했다. 제품별로 3종(액정필름 2종·이어폰 걸이형 1종)은 장착 후 전자파흡수율 감소가 10% 이내에 불과했고, 7종(스티커 4종 및 롤패드케이스 카드 각 1종)은 전자파흡수율을 최고 95.6% 감소시켰지만 안테나 성능까지 저하시키는 것으로 확인됐

다. 파우치 1종은 전파 자체를 완전히 차단해 통화 불능 상태에 놓이게 했다. 또한 8종의 '생활환경 관련 차단제품'을 가전제품 장착 후 전자파 발생량 측정 결과, 모두 전기장파 자기장을 동시에 감소시키지 못해 전자파 차단효과가 없었다. 실제 소비자원이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자파 및 전자파 차단제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2%(416명)가 전자파가 인체에 해롭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76.6%는 '전자파 차단제품 사용경험이 있다'고 답해 전자파 차단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및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자파 차단제품은 '전자파 차단

솜', '휴대폰 부착용 스티커', '전자파 차단 식물' 등 순이었다. 차단효과에 대해서는 경험자 대다수(78.5%)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차단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18.2%)도 절반 이상이 '주관적 느낌'에 근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파 차단제품 구입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차단효과 검증 여부'와 '전자파 안전인증' 등이 있었고 제품 표시·광고 개선점으로 '차단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시', '전자파 차단범위의 명확화' 등을 꼽아 차단성능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가장 많이 요구했다. 소비자원과 국립전파연구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전자파 차단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자파 노출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는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고, 가전제품은 가급적 물에서 거리를 유지한 채 사용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